

濟州語와 石宙明*

姜 榮 峯**

〈차 례〉

1. 序
2. 濟州語 관련 業績들
3. 濟州語에 대한 功過

1. 序

이 글은 濟州語 연구에 있어서 石宙明(1908~1950)의 위치에 대하여 알아보려는데 있다.

잘 아는 바 대로 석주명은 세계적인 나비 學者다. 그에 대한 대강의 年譜와 업적은 아래와 같다.

1908년 11월 13일(음력 9월 23일) 평양에서 출생

1914년 서당에 들어가 한문 수학

1921년 송실고등보통학교 입학

1922년 송실고보에서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전학

1926년 송도고보 졸업(7회)/ 일본 鹿兒島 高等 농림학교 입학

1929년 高等 農林學校 졸업

* 이 글은 2000년 제주전통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2000. 10. 7) 「故 石宙明 선생 再照明」에서 발표했던 글을 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 1931년 모교 교사로 부임-나비 연구에 몰두
1940년 『조선산 나비 총목록』 출간
1947년 『제주도방언집』 출간 『조선 나비 이름의 유래기』 출간
1949년 『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 인구론』 출간
1949년 『제주도문헌집』 출간
1950년 10월 6일 총무로 4가 근처에서 술취한 청년들과 사소한 시비 끝에 피격
당함
- 1968년 『제주도수필』 출간
1970년 『제주도곤충상』 출간
1971년 『제주도자료집』 출간
1973년 『한국산 접류 분포도』 출간

2. 濟州語 관련 業績들

우선 제주어와 관련된 그의 업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濟州島方言集』(1947, 서울신문사)
- (2) 『濟州島隨筆』(1968, 寶晉齋)→2.方言(49~57면)
- (3) 『濟州島資料集』(1971, 寶晉齋)→14개 항목(별항 참조)

2. 1. 『濟州島方言集』(1947. 12. 30발행)

이 자료집은 우리 나라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방언 자료집이라는 데 그 값어치가 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 학자인 小倉進平과 河野六郎에 따라 전국 방언 자료집이 있을 뿐이었다. 특히 일정한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조사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조사 경위와 과정은 이 자료집 '序'에 잘 나타나 있다.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만 2개년여를 筆者는 濟州島에서 生活할 機會를 가졌다. 京城帝國大學附屬生藥研究所 濟州島試驗場에서 勤務하였는데, 專門하는 學問外에 틈틈이 蒐集한 濟州島資料의 하나가 이것이고, 日本帝國主義 時代의 末期의 일이라 물론 露骨의으로는 못하였으나, 소위 大學의 官吏라고 해서 比較的 自由로운 몸이었던 關係로 能率을 내었다. 1945년 5월에 開城에 있는 本所로 轉勤할 때도 다행히 아모 損失이 없이 와서 內面的으로 틈틈이 整理하다가, 8월 15일 우리 民族이 解放되자, 먼저 우리말을 찾고서는 곧 이것을 表面에 내놓고 整理에 奔忙하였었다. 그리고 1947년 6월에 들어와서야 脫稿하게 되었으니 이 일은 戰後 5개년에 巨해야 된 것이다.

이것을 完成하기에는 標準語를 비롯하여 地方語를 敎示하여 주신 여러 동무들의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責任을 分明케 하기 위하여 그곳마다 그 동무들의 尊名은 記錄하여 敬意를 표하였다. 이제 다시 여기서 感謝의 뜻을 표하고 싶다.

여기서 本書의 內容에 대하여 조금 記錄하고 싶다. 제1편 方言集의 內容인 語彙는 좀더 長期間을 許한다면 좀더 蒐集할 수가 있었겠고 이 제1편을 基礎로 한 제 2편 考察은 諸學者라면 좀더 發展시켰을 것이다. 專門外인 筆者라도 共通方言을 %로 計算해 보고도 싶었으나 자세한 것은 專門家에게 맡기로 하고 筆者는 그 傾向만 알 수 있는 것으로 滿足하기로 하였다(*표기법은 당시 그대로 따른다. 아래 인용문도 마찬가지다).

1947. 6. 25. 서울에서

지은이 적음

좀더 구체적인 제주어 조사·수집 동기와 방법은 「國學과 生物學」이란 글 가운데 '4.방언과 곤충' 항목에 잘 나타나 있다.

(前略…)

이 곤충상에 의한 육지 구분, 즉 곤충 분포에 따른 육지 구분은 인위적인 구분과도 도저히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어떤 구분선은 대륙을 중단(中斷)도 하고 소지역에 있어서도 행정구역과는 일치가 안 된다. 또 비교적 분포가 넓은 곤충 종류는 동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산지(產地)에 따라 지방적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지방에 나는 같은 종의 곤충에 있어서도 그 종류의 개체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만하면 방언과 곤충 사이에는 일맥상통하는 점-지방차와 개체 차이로 보아 공통점-이

많아서 방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곤충을 연구할 수도 있겠고 또 곤충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방언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해방 전에 경성대학 제주도시험장에 2개년여나 체재해 있었는데, 제주도의 독특한 방언을 들을 때 곧 방언과 곤충을 연결시킬 수가 있었다. 나는 내가 전공으로 하는 나비류를 종별로 지도상에 분포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을 방언에도 응용하여, 약간의 단어를 선택하여 그 분포를 지도 위에 표시하려고 기도하였었다.

그러나 문헌을 약간 조사하는 중 이 방법은 벌써 Gillieron이 불란서 언어지도를 작성한 이래 언어지리학이 수립되어 방언학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일본에서도 벌써 이 방법에 의한 업적이 많음을 알고는 불원간 조선에서도 널리 사용되리라 기대하고, 방언학은 나의 전문도 아니니 그만 중지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제주도에 온 이상 이런 기회에 곤충을 채집하는 한편 방언 단어라도 많이 모아서 조선어 학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의가 있으리라 느껴서 단어수집에 상당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1년 예정으로 제주도에 부임했지만 1년만 지내고 귀경한다면 그 단어 수집하는 일이 중단되겠으므로 그대로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더니, 장소가 제주도란 벽지이니 만큼 대학 본부로부터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총장이나 의학부장이나 기타 교수들까지도 위문해왔던 형편이었다.

만 2년 동안 수집한 단어는 7천이 되어 일단락 지었고 그때는 해방되는 해라 차차 시국이 달라져 감을 깨닫고 5월에는 그만 귀경하였다. 수집된 단어의 수는 상당히 많으니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리하면 뜻깊은 일이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래서 곤충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지방 곤충상 상호간의 유연 관계(Affinities)를 숫자적으로 연구하는 것처럼, 그 어휘 중에서 전라도·경상도·함경도 및 평안도 등 여러 방언과 공통되는 것들을 뽑아서 그 백분율을 산출해 보았고, 또 방언 상호간의 유연 관계를 음미하여 보았다. 그랬더니 제주도방언과 가장 유연 관계가 깊은 것은 전라도방언인데 양자간의 공통어휘는 불과 5%여서 제주도방언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연구방법은 별로 독창적인 것은 아니고 곤충학에서는 흔히 쓰이는 것이나 방언 연구에 응용한 데에 의의가 있었고 필자가 감히 전문 밖의 학문에 손대게 해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제주도곤충 조사와 제주도방언 내지 제주도 조사 간에는, 좀더 크게 말하면 나의 곤충학과 제주도 사이에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었다. 제주도 나비류의 진상은 제주도의 전모를 구명함에 있어서 더욱 잘 인식되는 때문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방언(언어)지리학의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인데, 이는 그의 최대 업적이라 할 『韓國産蝶類分布圖』(1973)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도 “나는 내가 전공으로 하는 나비류를 종별로 지도상에 분포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을 방언에도 응용하여, 약간의 단어를 선택하여 그 분포를 지도 위에 표시하려고 기도”했던 것인데, 나중에 방언학에 언어지리학이 있음을 알고 포기했다는 것이다.

잘 아려진 바대로 우리 나라는 아직 전국적인 언어지도는 작성되지 않았다. 일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시도한 바 있었지만 소요 예산 관계로 무산되고 대신 방언 자료집이 나왔을 뿐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강원도(이익섭)·전라남도(이기갑)·경상북도(김덕호)·경상남도(김택구) 그리고 충청북도(김충희)만이 언어지도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언어지리학을 제주에 대입시키려 했던 시도는 무척이나 값하는 일이다.

한편, 조사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른바 ‘일러두기’(실제로는 이 표현은 없다)에 아주 구체적으로 18개 항을 제시하고 있다.

1. 여기 蒐集한 말은 필자의 제주도 생활 2개년간에 도내각처에서 수집한 것이나, 주로는 涯月面 출신 張周鉉, 西歸面 好近里 출신 金南雲 兩君의 助力으로 文世榮씨의 朝鮮語辭典을 텍스트로 하여 모은 것이다.
2. 그러나 필자의 생활한 장소가, 西歸面 吐坪里이니 南部語가 비교적으로 많을 것이다.
3. 濟州島語는 1方言으로 볼 수 있으나 濟州, 旌義, 大靜의 3地方語로 다시 논할 수도 있고, 또 1地方語도 부락마다 다소 相違하니 세분한다면 끝이 없다. 그래서 편의상 上記의 兩君을 통하여 系統的으로 漢拏山을 중심으로 北部語와 南部語로 二分하여 수집하였다.
4. 方言이라 해도 단어에 한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는 語句까지를 포함해서 言語現象 전체를 취급하였다.
5. 1語 혹은 1句에는 1枚의 카드를 사용키로 하고 濟州語, 標準語及日本語를 기록하여 그 자료를 정리하였다.
6. 濟州島에는 半島에서는 벌써 消滅된 /·/의 발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이 濟州島에서는 극히 많이 쓴인다. 즉 /ㅏ/도 안이요, /ㅑ/도 안이요, /ㅓ/도 안이라, 거진/ㅜ/의 발음으로 /·/자를 부활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7. 2 개년간에 수집한 카드의 수는 약 1만매이었으나 중복된 것도 있었고, 僅微의 綴字의 相違에 불과한 것도 적지 않았어 적당히 選定키로 하였다. 다음의 표는 철자 선정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즉 앞 字는 선정된 것, 뒷 字는 落選된 것들이다. 그리고 同意語는 =로 連絡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철자 선정의 예 제시)

8. 〈.〉는 強弱, 大小及 頻稀를 의미한다.
9. 濟州語中 (괄호내)에 있는 字는 그 有無에 不關하고 의미가 같다.
10. 편의를 위하여 反對語는 兩方 공히 동일 장소에 중복되게 기입하고 連續的 語는 最初語 個所에 중복하여 系統的으로 全部를 기입하였다.
11. 형편에 따라 說明語 又は 用例는 附記하였다.
12. 이 책은 辭典이 아니요, 어떤 것은 語尾의 變化같은 것도 실려서 체제가 좋지 않은 것도 있으나, 이것을 기초로 그 문법을 歸納함에 편케 하였다.
13. 「~」의 표는 同上 혹은 同前의 뜻이다.
14. 半島標準語가 없는 것에는 一를 附하고 말았다. 그러나 약간의 新稱도 附하였다.
15. 물론 半島標準語로도 통하는 것이 많고 標準語가 一層 광범위로 쓰일 때라도 同意語가 있다면 이 책의 목적 대로 濟州語만을 擇載하였다.
16. 전체적으로 보아 통일되지 않은 점이 많은 것은 필자도 遺憾히 생각하는 바이다.
17. 半島標準語中에는 京城 출신 徐廷俊, 開城 출신 金器重 兩氏의 도움으로 기록한 것이 적지 않다.
18. 特殊語들은 따로 모아 다음의 諸篇을 編輯하였다.
 - ① 植物의 濟州島名
 - ② 動物의 濟州島名
 - ③ 濟州島의 洞里名

참고로 그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序

第1篇 濟州島方言集(7,012 어휘)

第2篇 考 察

- 1장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의 공통어(光州 출신 張亨斗: 445+340=785어)
- 2장 제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의 공통어(大邱 출신 白甲鏞 夫妻: 521+338=859어)
- 3장 제주도방언과 함경도방언의 공통어((朱乙 출신 尹京烈 夫妻: 412+328=740어)
- 4장 제주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필자와 내자·동생: 156+118=274어)
(*여기서 제시한 숫자는 제주어의 공통어로 볼 수 있는 것+제주어의 畵同 하다고 볼 수 있는 것)
- 5장 제주도방언과 半島 대표의 4방언(1장~4장 총괄)
- 6장 제주도방언 중 전라도·경상도·함경도·평안도 등 諸其他的 방언과 일치하고 표 준어와는 상이한 諸語(18어)
- 7장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경상도방언의 공통어(125어)
- 8장 제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함경도방언의 공통어(106어)
- 9장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함경도방언의 공통어(91어)
- 10장 제주도방언과 함경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46어)
- 11장 제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23어)
- 12장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19어)
- 13장 제주도방언과 他4방언의 상관도(7장~12장 총괄)
- 14장 반도 방언2개식을 조합해서 음미함
 - ①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함경도방언의 공통어(52어)
 - ② 제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함경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12어)
 - ③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함경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7어)
 - ④ 제주도방언과 전라도방언과 경상도방언과 평안도방언의 공통어(5어)
 - ⑤ 본장의 총괄
- 15장 제주도의 북부어급 남부어와 반도각지방언의 관계
 - ① 북부어와 각지방언의 공통어
 - ② 남부어와 각지방언의 공통어
 - ③ 본장의 총괄
- 16장 제주도방언 중 조선 고어인 것
- 17장 외국어에서 유래한 제주도방언
 - ① 제주도방언 중 몽고어와 관계있는 것(張慶燮·趙善一: 240어)
 - ② 제주도방언 중 지나어(중국)와 관계있는 것(張慶燮·趙善一: 53어)

③제주도방언 중 만주어와 관계있는 것(張慶燮·趙善一: 22어)

④제주도방언 중 일본어와 관계있는 것(: 50어)

⑤본장의 총괄

18장 참고문헌

후기

第3篇 隨 筆

後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으로 끝을 맺기로 하니 아래와 같은 不足感을 느낀다.

1. 語彙 蒐集에 더 노력할 것. 더욱이 山北部 즉 濟州邑을 중심으로 한 北部語 蒐集에는 一層 노력할 것이다.
2. 一層 완성하려면은 旌義를 중심으로 한 東部語, 大靜을 중심으로 한 西部語도 蒐集하 야겠고 적어도 大靜語만은 추가하여야 된다.
3. 동시에 半島 代表 諸地의 方言辭典을 작성하여 比較研究에 편케하여 한다.
4. 될 수 있으면 音標 文字를 사용할 것이고, 여기서는 취급치 않은 南方諸語와 도 비교할 것이다.

2. 2. 「濟州島隨筆」(1968. 11. 10 발행) 중 〈方言〉

여기 수록된 내용도 앞의 자료집 '수필'에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음 항목(41개항)들이다.

가슴/ 개차반/ 곰배/ 기러기/노루/ 동생/ 되미/ 독새기/ 똥핀다/ 벼음/ 마음/ 말삼/ 단독/ 바람/ 방상/ 병풍/ 뽕룽이/ 봉그다/ 비낭대죽/ 비사야어/ 사람/ 삼키다/ 소/ 시루/ 심방/ 쓸과 비바리/ 억새/ 오리/ 으음/ 자루/ 잠긴다/ 마래어/ 비도어/ 조다와 쪼다/ 짐승/ 벼음/ 찰떡/ 찹쌀/ 첩/ 파리/ 하늬브름/

몇 예를 보자.

개차반. 이 말은 品行이 나쁜 사람의 別稱임은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이 말

이 어디서 由來되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차반'이란 말이 古語 飲食이란 말이니 '개차반'이라면 "개의 음식"이란 말에서 由來되었을 것이다. 濟州語로는 '개차반지'라고 '지'가 붙는데 '지'는 韓國人의 人, 動物, 物의 語尾를 말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거지, 강아지, 망아지, 오이지 등의 '지'일 것이며 따라서 '개차반지'는 原始的으로 表現된 말이라 할 수 있겠다.

돌핀다. 直譯하면 '娘賣'의 뜻인데 즉 '딸시집보낸다'라는 말로 古風이 遺傳된 말이다. 이 風習은 陸地에서도 아직 其殘滓를 볼 수가 있고 小美風의 觀을 모하는 比島에서도 村落에서는 아직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韓國에서와 같다고 한다. 그러나 濟州島에서는 '아들장가보낸다'는 것도 '아들핀다'고 한다.

2. 3. 『濟州島資料集』(1971. 9. 10 발행)

이 자료집 가운데 방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濟州島方言隨筆補遺

가사/ 감/ 콩과 비바리/ 기와/ 나락/ 말라리아/ 매미/ 미나리/ 벼루/ 벼룩/
비면소/ 채와 계/ 태국어/ 토끼/ 하품

(2) 濟州島의 植物名(546어)

(3) 濟州島의 動物名(359어)

(4) 農業 관계의 濟州語(586어)

(5) 林業 관계의 濟州語(87어)

(6) 牧畜 관계의 濟州語(325어)

(7) 海産 관계의 濟州語(116어)

(8) 漢字의 濟州名(199어)

(9) 濟州島의 洞里名(185어)

(10) 濟州島方言 중 朝鮮 古語(338어)

(11) 外國語에서 유래한 濟州島方言

① 蒙古語(184어)←240어

② 日本語(49어)←50어

③ 中國語(41어)←53어

④馬來語(33어)

⑤滿洲語(16어)←22어

⑥比島語(15어)

⑦安南語(12어)

(12) 濟州島方言과 馬來語(全周鴻·李愚兌: 33어) 가람·평·모새기·미라·바둑

(13) 濟州島方言과 比島語(趙尙福·崔武楫: 타갈로그어·비사야어·비도어→12어))

(14) 濟州島方言과 安南語(李一來: 安南語→12어, 廣東語→6어, 湖洲語→4어)

이상에서 그의 제주어와 관련한 업적들을 살펴보았다.

3. 濟州語에 대한 功過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하고자 한다.

(1) '濟州語' 라는 명칭 사용

자료집이나 수필 등에서 '濟州島方言' 이나 '方言' 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간혹 '濟州語' 나 '濟州島語' 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물론 방언학에서는 한 국어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 언어 체계를 '方言' 이라고 하지만, 이 '방언' 이란 어휘는 전통적으로 중국어에 대한 변방의 언어로서 '한국어' 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바 있고, 방언학에서도 '사투리' 라는 개념과 혼동이 되어 '지역어' 로 쓰자는 논의도 있다. 1995년 濟州道에서 방언사전을 만들 때 몇몇이 『제주(도)방언사전』으로 할까를 망설이다가 결국은 변두리에서 탈피하고 변방이라는 국부성에서 벗어나 國語와 같은 개념으로 확대·해석해서는 『濟州語辭典』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런 개념의 '제주방언' 을 '濟州語' 라 명칭을 사용한 것은 선구자적 안목의 결과다.

(2) 南部語와 北部語의 구분

본인 스스로도 '일러두기' 첫번째 항목에서 "주로 涯月面 출신 張周鉉, 西歸面 好近里 출신 金南雲 양군의 조력"을 받았다고 한 점이나, 둘째 항 "필자의 생활한 장소가 西歸面 吐坪里이니 비교적 南部語가 많을 것"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나아가 후기에서도 "더욱이 山北語 즉 濟州邑을 중심으로 한 北部語 수집에는 일층 노력할 것"이라 하여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南部語가 많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집을 보다 보면 南部語와 北部語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그가 짧은 제주 체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山南과 山北의 문화 차이를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회의 반영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목관·대정·정의로 나눈 삼현 분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濟州島語는 1方言으로 볼 수 있으나 濟州, 旌義, 大靜의 3地方語로 다시 논할 수도 있고, 또 1地方語도 다소 상위하니 세분한다면 끝이 없다"라 밝히고 있다. 후기에서도 "일층 완성하려면은 旌義를 중심으로 한 東部語, 大靜을 중심으로 한 西部語도 수집해야겠고 적어도 大靜語만은 추가해야 된다"라 적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언급들은 언어지리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5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유효한 思考다.

(3) 濟州語와 外國語 비교

그는 『濟州島方言集』에서 '외국어에서 유래한 제주도방언'에서 '몽고어·중국어·만주어·일본어'와 비교하고, 그 이후에 『濟州島資料集』에서는 '馬來語·比島語·安南語'를 추가하고 있다. 비교언어학에서는 共通祖語에서 분기되어 나온 언어라야만 비교 가능하다(借用語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한다면 中國語나 馬來語·比島語·安南語 등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또 비교 가능한 몽골어도 『濟州島方言集』에서는 240개 어휘인데 비하여 『濟州島資料集』에 와서는 184개 어휘로 줄어들었고, 滿洲語도 22개 어휘에서 17개 어휘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아마도 확실한 음운론적·형태론적·의미론적 대응 없이 흡이 서로 비슷하거나 뜻이 비슷하면 그 언어에서 유래했다고 단정한 결과라 보인다. 그러나 계통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 몽골어와의 비교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일임에 분명하다.

몽골어인 경우는 내몽골어일 가능성이 짙다. 이런 사실은 그의 글 『蒙古人の片

想」에서 “...몽고통인 張君(아마도 『濟州島方言集』에 언급된 張慶燮 씨인 것 같다)과 그의 義兄格인 蒙古人 趙金山 씨의 안내로...” 내몽골 지방을 여행하고 있는 사실에서 짐작이 되기 때문이다.

(4) 濟州文化를 반영한 言語 隨筆

여기서의 ‘隨筆’은 그야말로 언어 수필로, 언어를 통해서 제주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앞에서 예로 든 ‘개차반’이나 ‘똥 풀다’ ‘아들 풀다’ 등이 그렇다. 몇 예를 더 보자.

삼춘; ‘삼춘’의 뜻임을 물론이요, ‘삼춘대’ 보고도 ‘삼춘’이라면 되니 편리한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삼춘’은 친밀한 어른의 호칭에도 광범위로 사용할 수가 있는 말이니 대단히 편리하다.

생완; 生員에서 유래한 모양이고, 巫女가 남자 청년을 부를 때에도 쓴다. 장년에 게는 ‘댁’이라고 부른다.

소도리; ‘쏘개질’ ‘말질’ ‘말전주’들의 제주어인데 ‘소도리질’ ‘소드리’ ‘소드리질’이라고도 한다. ‘말질하다’를 제주어로 표현할 때는 ‘소도린다’ ‘소도린다’ 혹은 ‘소도리맞추다’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극히 흔한 일이다.

石宙明의 ‘濟州語’에 대한 최종 평가는 서울대 교수였던 方鐘鉉 선생의 서울신문(1948년 3월 12일자)에 발표했던 글로 대신한다.

신년 벽두에 조흔 책이 나왔다

방언은 즉 우리말의 일부분이요 다만 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우리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반드시 이 방언의 중요함을 느끼는 것이니 사라져 활용되는 실재어를 응용할 수가 있고 죽어서 이미 문헌화한 古語를 이것에 의하여 밝힐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문이 다른 이 동물학자의 손에서 가장 흥미를 끌고 있는 제주도의 방언이 집대성된 것은 과연 경탄을 마지않는 일이며 또 이 방면 전

문가에게도 크게 충동을 주었스리라고 믿는다.

이 책은 단순히 방언학자가 꾸민 방언집만이 아니다 그 목차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거니와 제1편 方言集이요 제2편이 방언의 考察이요 제3편이 방언의 수필로 되어 그 방언집에서 우리는 제주도방언의 사전으로 이것을 인용할 수 있으며 그 고찰에서 우리는 他方言과 비교의 결과를 엿볼수 가 있고 그 수필에서 우리는 흥미있는 가운데 이 방언의 지식을 자세히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서 이 방언집이 우리의 方言學上에 장차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귀하다 語彙며 音韻 방면은 물론이고 제주도방언의 문법까지도 이것에 의하여 조성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가치 우리에게 學的資料를 충실하게 제공하여 일반으로 편익을 주는 점에서 이 책은 시로 귀하다고 할 것이다.

쫓트로 이 방언집의 맨마지막 페이지에 실려있는 수필단어 한 개를 그대로 소개하고 이것을 마추려고 한다.

호미: 濟州語로 '호미' 라면 육지의 '낫' (鎌)을 의미하고 조선 어민이 흔히 쓰는 '호미'는 제주도에는 없다 육지서 쓰는 '호미'와 같이 쓰고 形狀도 近似한 것은 '굴개' 혹은 '굴갱이'란 것인데 호미의 날이 자루와 같이 둥게 되어 갈고리 비슷이 되어있다. 돌이 많고 흙이 輕鬆(경송)한 곳에서 제초하는 데는 이 형상이 유리할 것이므로 자연 이런 變形의 農具가 생겼을 것이다.

이와 같틈으로 이 方言隨筆은 동시에 濟州島의 一般을 알려는 이의 조흔 재료도 된다.

〈참고문헌〉

- 석주명(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 석주명(1968), 『濟州島隨筆』, 寶晉齋.
- 석주명(1971), 『濟州島資料集』, 寶晉齋.
- 석주명(1992), 『나비 採集二十年的 回顧錄』, 新陽社.
- 이병철(1989), 『나비박사 石宙明 評傳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아카데미서적.